

차라리 짐승을 키우지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유다 왕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 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어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도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적막같이, 예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리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 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임의 말씀이니라 [개역, 이사야 1:1-20]

제 게 보일러 놓아드려야 할 고향집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의 마음을 묘하게 움직이는 보일러 광고가 있었습니다. “어보 고향집에 보일러 놓아 드려야겠어요.”라는 광고 말입니다.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모두 부모님께 효자노릇 하고 싶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겠는가?” 생각은 하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버이를 잘 섬기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합니다. 애기 드리는 저도 힘들어요. 잘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편하게 모시지도 못하면서 절기가 절기인 만큼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훌륭한 아버지보다는 고통받고 힘들어 하는 불행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40년 가까이 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세종대학의 전신이 무슨 사립 사범대학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이라고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40년 전에 그 대학에 딸을 보내놓고 등록금을 빌리러 간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는데 돈 빌리러 갔습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처음부터 돈 빌려달라는 얘기를 못하잖아요? 일부러 좀 거들어 드려야 되지요. 그래서 실컷 거들어 주고 조심스럽게 “돈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줄 아는데 없다는 겁니다. 적지 않은 돈을 빌리긴 빌려야 되는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열 세 번이나 가서 겨우 빌렸답니다.

그러니까 대학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월급을 탔습니다. “엄마, 나 월급 많이 받았는데 조금 줄까?” 그러면서 지폐 두 장을 꺼내줬다는 겁니다. 40년 전이니까 액수를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식으로 하면 월급을 한 2백만원 받았다 치고 지폐 두 장이면 천원짜리겠습니까? 만원짜리겠습니까? 많아야 2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섭섭했으면 그 딸이 저희 아버지께 들어오고 40년이 다 지난 지금도 제 귀에까지 들어왔겠습니까?

자식을 키우고, 공부시킨다고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그걸 알아주는 자식들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고생

스럽게 키워서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도 우리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는 자녀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 때 되어서 부모님들에게 생활비라도 보내드려야겠지만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우면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도 형편이 참 어려웠습니다. 마침 학자금 융자제도가 만들어져서 등록금을 은행용으로 많이 받았는데, 그것도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그때 보증서 준 분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요 앞 큰길에 관문주유소가 있다가 문 닫고, 그 옆에 또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그 주유소에 밤 늦게나 새벽에 가시면 기름 넣어주시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그 분이 옛날에 학자금 융자받을 때 도장 찍어주신 분입니다. 의도적으로 새벽녘이나 밤중에 한 번씩 갑니다. 참 고마워요. 저희 아버지께서 도움을 받았지만 30년이 넘었어도 그걸 기억하고 가끔 일부러 찾아갑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특이하고, 착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되어서 '부모가 우리 때문에 과거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생 고생하며 공부시켜 놓았는데 나중에 월급 탔다고, 돈 많이 탔다고 자랑하면서 천원짜리나 만원짜리 한 두 장 꺼내서 준다면 섭섭한 마음을 지울 수 없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불행한 아버지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문을 보면 '어떻게 사람을 키우겠냐? 차라리 짐승을 키우지' 이런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듯합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아버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문은 이사야서의 시작 부분인데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을 생각해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에 끝에 '야' 자가 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끝에 '야'가 붙어 있으면 전부 '여호와'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가령 '엘리아'라면 해석할 수 있겠네요. '엘리' 아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서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어미 '이'는 '나의' 입니다.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고 거기에 '야'가 붙었으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가 됩니다.

이사야도 "틀림없이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 부분의 '이사는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는 말이라도 자음끼리만 비슷한 말을 찾아봐도 답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자음끼리만 맞추면 '이사가 '예수'라는 말과 비슷하죠? 우리말로 '이사'라고 음역해 놓았지만 히브리말로 발음하면 '예수가 됩니다. 그렇게 발음하면 '예수'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뜻이 '구원'하십니까? 결국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일 처음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부릅니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아주 거창하게 서두를 시작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둘 사람이 없어서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부릅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천지를 불러서 증인으로 삼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하늘과 땅이 듣고 너희가 증인을 서 달라'는 뜻에서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부릅니다.

여러분, 사고를 당했거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옆에서 증언을 해 줄 사람이 없으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큰 길거리에 '목격자 구함 후사하겠습니다' 하고 플래카드 걸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증인이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증언해 줄 대상이 없어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상대로 재판을 해야 할 형편이니 어디 가서 누구에게 호소하겠습니까?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입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성경이니까 표현을 부드럽게 했지 '소는 그 입자를 안다'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야, 이 소만도 못한 놈들아!' 이 정도는 짐작은 표현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은 소가 아니라 짐승입니다. "어떻게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밥통을 아는데 너희는 어찌되어서 애비도 몰라보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겠

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계시는데 첫째가 어떻게 해서 애비를 모르고 주인을 모르느냐는 겁니다. 집에 있는 개도 주인을 얼마나 잘 알아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것이 짐승보다 못하냐 말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것을 하나 더 지적합니다. 5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더욱 패역하느냐' '더 맞으려고' 하는 말씀은 이미 매를 많이 맞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더 맞으려고 더욱 더욱 패역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도 매를 맞으면 알아듣습니다.

저희 안장구역에 개가 한마리 있는데 참 불쌍합니다. 구역예배를 드리러 가면 이게 말을 안 듣는다고 '손들어' 하면 앞발 딱 치켜들고 별 서듯이 한참을 버티더군요. 저 놈의 자식이 얼마나 두들겨 맞았으면 저러나 싶어요. 이런 강아지나 짐승도 몇 대 맞으면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더 맞으려고 계속 패역한 길로 가느냐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리실까요? 6절 보세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 뿐이어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더라' 치료받을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두들겨 맞고 있는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낳고 기른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과 또 그렇게 매를 맞고도 계속해서 패역한 짓을 하고 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나쁜 짓만 골라가면서 행한 것 같죠?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저러시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무수히 드렸다는 뜻입니다. 또, '나는 수양의 기름과 살찐 짐승에 배불렀고...' 아, 하나님께서 많이 잡수셨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양하고 살찐 짐승을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는 뜻입니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기뻐하지는 아니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13절에,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라는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월삭이나 안식일을 정해 놓고 대회로 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해 패역했다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눈을 가리우고...'에서 '손을 편다'는 건 뭐니까?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펼치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너희가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느냐?'고 책망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선 억울합니다. "우린 하나님께 드릴 만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부를 만큼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왜 저러시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억울한 말씀을 하십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그냥 예배를 드렸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정해진 때에 모여서 정해진 규정대로 제물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분향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깐 한편으로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그 손에 피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무슨 피입니까? 짐승 잡은 피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불쌍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6절에,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며 선행을 배우며 긍휼을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런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땅히 돌아보아야 할 이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만 열심히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나를 제대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효자제일교회가 교회생활 하기에 결코 쉬운 교회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려니 힘들어 못하겠다는 비명이 가끔 들립니다. 열심히 내지 않고 그냥 예배에만 몰래 왔다 갔다 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교회죠. 거기다가 기존의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따라가려면 정신이 다 없을 정도니까요. 열심히 교회생활 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예전 교회의 일입니다. 성경공부 모임을 시작하는데 낯선 분이 말씀하시는 투는 그 교회에 오래 다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봤죠. "이 교회 다니신지 얼마나 됩니까?" 하니깐 한 20년 다녔대요. "20년을 다녔는데 어떻게 근 40년 가까이 다닌 제게 낯이 서냐?"고 물어봤죠. "20년요?" 그러니까 이 분 하시는 말씀이 "20년 다녔는데 2주에 한 번씩만 나와도..." 한참 계산을 하더니 "500번이나 나왔네요." 하시는 겁니다. 주일에 500번이나 나왔다는 겁니다. 스스로 대견하게 여깁니다. 500번이라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그러면 2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새벽기도, 매주 낮예배, 저녁예배, 수요일, 구역예배, 성경공부, 금요기도회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20년 다녔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천문학적인 숫자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느냐 할 때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챙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드린 예배가 몇 번이나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접어놓고 그냥 회수만 채우고 현금 액수만 많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긴 겁니까? 열심히 현금하고 열심히 교회 들락날락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 현금, 전도한 것이 몇 번이냐고 물으면 경우에 따라서 한번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새 차를 사면 고사 지내기 가장 좋은 장소가 포항에서는 연일다리라고 합니다. 수면에 가장 가까우면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죠. 왜 거기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뭍 가까이서 고사 지내면 차에 있는 액운이 물에 다 떠내려간다."냐요? 전에 같이 있던 선생님이 그 소리를 하길래 "야! 차라리 차를 크레인에 매달아서 물에 넣고 풍당풍당 해버려라. 싹 씻겨나가게.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하냐?"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둑이 사업차 차를 사도 그 앞에 고사상 차려놓고 절합니다. 사고나지 않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요. 그러면 그 고사떡 얻어먹고 사업 잘 되게 하고 사고 안 나게 해 주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신입니까? 말이 안되도 한참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고 그냥 때가 되었으니 예배 드리러 가고, 제사 드려야 한단니까 드리고, 나가서 못된 짓 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싫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므로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제사 지내고 제물 드리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러고 있었습시다. 그건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울부짖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신앙 따로, 사는 것 따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만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당신은 교회 가면 천사, 집에 오면 폭군'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교회 가면 얼마나 점잖고 우아한지 모릅니다. 집에만 들어가면 식구들에겐 폭군, 고집, 독선..... 그럴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가정에도 여전히 함께 계시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교회 다르고, 집 다르고, 가정 다르고...’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려도 싫다. 네가 도대체 나를 완전히 무시한 것 아니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이런 악행을 전부 버리라는 뜻입니다. 이런 악행, 이웃을,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정의롭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은 하나님께서 싫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읽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11절을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잔뜩 먹어서 배가 터질 지경입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부지런히 옵니다. 오긴 오는데 “누가 오라고 하더냐?”는 겁니다. 자식은 틀림없는 자식인데 말하자면, 꼴도 보기 싫은 자식들이 어버이날이다 뭐다 해서 집에 와서 복세통을 이루고 있는데, 싫다는 겁니다. 14절 봅시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일어날 수도 없다는 얘깁니다. 피곤해서 쓰러지기 직전이라는 얘기죠.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듣기 싫고 보기 싫다는 거예요. 입에만 발린 말을 하나님께서는 듣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제발 입 좀 다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의미에서 만신창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못난 자식을 많이 둔 죄죠. 달리 죄가 아닙니다. 부모 된 죄죠. 못난 자식을 많이 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픔을 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넓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인해서 또 아담의 후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으셨는지 모릅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요?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는 하시면서 땅에 어두움이 내렸던 그 사건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아담 때문요? 아담을 누가 만드셨어요?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을 사랑한 게 죄라면 죄입니다. 사랑할만하지 못한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인간들 때문에 그렇게 고통 당하셨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셨던 모양입니다.

10절을 봅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고모라도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소돔의 관원들이’ 합니까? 아니 누구를 보고 ‘고모라의 백성이’ 합니까? 자기 백성을 보고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끔 마음이 몹시 상하면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안 부르는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한 군데 있죠? 광야에서 방황하고 다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안 부르고 모세를 가리켜서 네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한다고 네 자식이 됩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도저히 내 백성이라고 못 부르겠다, 그래서 고모라의 백성들 부르겠다, 그래서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고모라의 백성이 되고 남의 백성이 됩니까? 죽으나 사나 내 자식인 건 틀림없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면 자기 백성을 가리켜서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마땅히 우리의 해야 할 바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깨끗이 멸해 버렸습니다. 지

금은 소돔 고모라가 어디 있는지 흔적도 없습니다. 추측컨대 사해 남쪽 깊은 곳 어디가 아닐까요? 사해는 굉장히 낮은 바다입니다. 사해 표면이 지중해보다 200m 낮아요. 또 사해가 깊은 곳은 표면에서 800m까지 내려갑니다. 굉장히 깊은 곳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유허불을 내려 멸하실 때 흔적도 없이 깨끗이 없어 멸하신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다른 점이 있다면 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겼어요? 8절에, '달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포도원을 완전히 망하게 하면서도 하나를 남겼습니다. 망대같이 남았습니다. '원두막의 상적막같이' 그냥 원두막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없애도 원두막 한 개는 남겼고, '예워싸인 성읍같이' 다른 모든 성읍들은 다 멸했더라도 하나를, 지금 완전히 적으로부터 둘러싸여 목숨이 위태위태합니다마는 그런 성 하나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징벌을 가하시고 책망을 가하시면서도 핵심은 8절의 제일 끝에 '겨우 남았도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사실은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 하고 가 해도 어쩔 건 남깁니다. 이유는 징계를 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남겨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 맞을래?" 야단치는 이유는 "제발 때 맞을 짓 그만 좀 하라!"는 겁니다.

1절로 되돌아가서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던 시기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왕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라고 말씀하시죠. 히스기야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는 거죠. 지금 북쪽 이스라엘처럼 너희도 완전히 망할 거야. 북쪽 이스라엘을 보고 정신 좀 차리라는 겁니다. 더 맞아야 정신 차리겠느냐? 이사야가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더욱 분명한 것은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18절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무리 악한 죄가 있다 해도 와서 이야기 한 번 해 보자는 겁니다. 너희가 깨끗하게 회복될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단치고 책망한 본심이 군데 군데 묻어 납니다.

사실은 이사야서 전체를 훑어보면 누구의 예언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실 것이 잘 나타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패역하면 때를 맞는다 맞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손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후반으로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쏟았음에도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길로 가는, 아버지의 이 안타까움을 알아주지 못하는 자식을 가진 이 아버지가 어쩌면 가장 불행한 아버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부모에게 효를 다 하고 어떻게든지 부모를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효를 다 해야 할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이 아니고 예배드릴 때는 물론이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나 이웃사람을 만날 때 직장생활 할 때 심지어 자동차 운전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먼저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어야 우리 부모에게 진정으로 효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철없는 자식들이야 부모마음 알기 어렵죠. 저도 지난 어버이날 그동안 투자한 게 많아서 꽃 두 송이 얻었습니다. 그동안 투자 얼마나 했는데요? 참 투자 많이 했는데 겨우 꽃 두 송이 얻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는 누워가지고 "사다 놓았으니까 갖고 가세요." 하더군요. 그런 일로 섭섭한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자식들에게 쏟는 그 사랑에 대해서 자식들은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역으로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섭섭하게나 안 하면 잘 하는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면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할 것 아

닌가 생각합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잘 사는 것 아닐까요? 잘 산다는 게 남보다 땡땡거리며 산다는 것보다 부모가 걱정 안 할 만큼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하도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이 많아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먹고살기에 급급한 자식이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했더니 오히려 더 걱정하더라구요. 제대로 먹고사는가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용돈을 부치니까 그게 전혀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전화 드리고 용돈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걱정거리 안될 만큼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산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최소한 건전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잘 살아야 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개를 참 많이 길러요. 푸른 잔디밭이 참 아름다워요. 저런 곳에 누워서 땡굴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들어갔다가 기겁을 했습니다. 왜 못 구르는지 아세요? 그 파란 잔디밭이 온통 개똥 천지거든요. 무슨 개똥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워낙 개를 좋아하고 개를 많이 기르니까 잔디밭이 온통 개똥 천지더라구요. 서양 사람들은 개를 왜 이렇게 좋아하나? 제가 생각하기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쏟아야 할 정을 전부 짐승에게 쏟는 것 아니냐 싶어요. 사람에게 정을 쏟으면 실망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아닐까 싶어요. 그런 서양 사람들이기에 개인적으로 정을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한국 처녀가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였는데 실수를 한 겁니다. 아들을 낳고는 한국 사람들이 하는 버릇대로 이 아들을 안고 시아버지에게 가서 “아버님, 아이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그랬거든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 시아버지가 완전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며느리가 있나?” 그래서 아이 이름 지어주고 아들에게도 안 물려준 재산을 손자에게 바로 다 넘겨 버렸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미국 사람에게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집가고 장가는 것조차도 경우에 따라서 부모에게 의논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넘어가면 자기 결정 하에서 시집가고 장가는 그런 사회에서 “세상에 며느리가 아이 낳았다고 이름 지어주세요.” 하고 왔더라 말이죠. 이 실수가 미국인 시아버지를 얼마나 감동시켰겠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정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굶주린 정을 어디다 쏟아 부어요? 개에게 쏟는 바람에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갔다가 개밥 먹는 수도 종종 있었답니다.

개밥하고 사람 먹는 것을 좀 구분해 놓으면 좋은데, 물론 자기네들은 쉽게 분간해요. 싸다 싶어서 가져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개밥이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먹었다고 그러던데 맛도 있던 모양이지요. 사람 키우느니 짐승 키우는 게 낫다는 게 얼마나 불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짐승보다 못한 놈들아!’ 이 말은 너희를 키우느니 차라리 짐승을 키우지! 라는 말씀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감동시켜도 엄청난 복이 쏟아지는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효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